

學問과 生活

哲學의 濫尊觀念에 抗하여 (4)

金午星

셋째, 哲學의 地盤이 되는 實際 生活은 항상 利害 衝突로 因한 社會의 分裂, 人間層의 對立(이러한 矛盾, 對立을 통해서만 人間世界는 發展된다.)을 가져온다.

이런 때는 哲學도 必然으로 두 개의 陣營에 난우이게 된다. 그리하여 既成層에 屬하는 哲學은 現實의 캄푸라주를 理論에 反映한다. 모든 觀念哲學은 이러한 現實의 캄푸라주의 現象이다. 哲學이 現實을 現實 그대로(勿論, 抽象化, 概念化를 通하여) 『探求』할 때 그들의 既得 利權은 維持되지 못한다. 왜-그러나 하면 分裂된 現實은 矛盾과 不合理를 本性 갖고 있는 때문이다. 여기서 哲學은 『錯雜』한 現實問題를 떠나 觀念의 世界, 理念의 世界에서 그 對象을 求하게 된다. 觀念이나 理念은 形式論理學이 어떤 論理를 武器로 하여 그 眞理性을 主張하며 辯護하고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主觀의 姿意의 設定임에 틀림이 없다. 姿意대로 産出할 수 있는 觀念의世界, 理念의 世界에 구태히 矛盾과 不合理를 끄러드릴 必要가 없다. 이리하여 哲學은 現實과 乖離하게 되며 實際 生活의 範疇를 벗어난 哲學 專用의 온갖 空想的 範疇가 생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外樣으로는 現實과 乖離된 듯한 觀念哲學은 實相은 既成層의 實際 生活의 要求를 理論적으로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왜-그러나 하면 觀念哲學은 哲學을 現實로부터 離反시킴으로 해서 現實의 非合理理性的의 暴露를 防禦할 수 있으며, 現實의 캄푸라주를 통해서만 그들의 生活 秩序를 維持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하나 이러한 事實을 모든 觀念哲學者가 意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觀念의 魔術性은 現實을 캄푸라주 할 수 있는 同時에 또한 自己 自身도 欺瞞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觀念哲學, 理想主義로 그 內的 意義에 잇서는 한 개의 現實主義이며, 各層 人間의 實生活의 要求에서 생겨진 것임을 證明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哲學이 非實際의이란 一般의 誤解를 除去키 위하여는 첫째, 哲學은 먼저 哲學者 間에만 專用되는 術語의 遊戲의 傳統을 깨트

리고 항상 우리들의 實際 生活 속에서 새로운 範疇를 求하며 內容의 豐富化를 期할 것. 둘째, 哲學者는 理論의 象牙塔을 깨트리고 書齋나 講堂 가튼 狹窄한 世界로부터 解放되어 街頭에, 現實世界에 나올것. 여기서만 哲學을 實生活에 對한 指導的 任務를 遂行할 수 잇는 것이다. 近來에 新進哲學들이 書齋나 講堂의 墻壁을 깨트리고 찌나리즘에 進出하여 從來의 講堂哲學의 代身에 文化 批判의 哲學을 樹立하려는 것은 반가운 現象이라 아니 할 수 업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哲學은 不斷히 現實을 坎푸라주하는 온갖 이데오로기의 魔術性을 批判하며 克服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리하여 現實의 批判을 通하여 現實을 貫流하는 本質을 明示하지 안흐면 안된다. (哲學이 現實에 則한다고 그것이 哲學의 通俗化를 가져올 憂慮를 갖는 사람이 업지 안흐나, 그것은 한 개의 杞憂다. 여기에 對해서는 달은 機會에 詳論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生活을 爲한 哲學, 즉 實存哲學은 單히 現實을 受動的으로 反映하거나 靜的으로 解釋하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同時에 現實을 發展시키며 새로운 現實을 創造하는 것이 아니면 안될 것을 理解할 수 잇슬 것이다. 哲學의 地盤인 우리들의 生活은 外部의 對象物과 싸워 억임으로서만 營爲된다.